



더 풍성해진 굿+판 ... '너랑 나랑' 열씨구!

'광주예술난장 굿+판' 30~31일 문화체험터 열씨구 굿+판·소통·예술캠핑마당...관객 어울림 행사 다채
내일 푸른길 마술·콘서트·아카펠라 등 사전공연도



지난해 광주시 남구 문화 체험터 '열씨구' 앞마당에서 흥겨운 판이 벌어졌다. '열씨구'가 주축이 돼 진행되는 '광주예술난장 굿+판'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행사지만 직접 참여해 본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이를 동안 계속된 행사장은 온종일 흥겨운 잔치집이었다. 판을 벌여준 예술인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관객이었다. 흥에 겨운 이들은 판에 뛰어들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뛰며 하나가 됐다. 민간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다.

지난 2009년 '젊은 실험 예술제'라는 타이틀로 처음 진행된 이 행사는 '굿+판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사후)를 구성, 많은 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행사를 치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행사 내용이 풍성해졌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너랑 나랑'이다. 메인 행사는 30일~31일(오후 4시~10시30분)까지 문화체험터 열씨구에서 열린다.

'판마당'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 이전 행사 출연팀 중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된 팀, 열씨의 브랜드 공연, 공모와 추천을 통해 공모한 팀들이 공연한다.

30일에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 광주전문 연희패, 시민들이 함께하는 개막 난장 '너랑 나랑', 김반장고한마당스의 놀이판, 마당극단 '좋다'의 '졸타기 난장', 마당극단 '우금지'의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열씨의 '구름 위의 산책'이 공연된다.

31일에는 '서플 코믹스'의 '올드타임쇼', 우물안 개구리와 바다프로젝트가 진행하는 '함께 놀자', 진금순과 내

벗소리민족예술단의 '씻김굿과 시나위', 멕시코 마리아치 라틴, '정의로운 천하극단 결판'의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열씨의 '꿈'이 관객들을 만난다.

'굿마당'은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공연 작품은 극단 '사니너머'의 '돌아온 박점지'다.

예술가들과 대화 시간으로 꾸며지는 '소통마당'에서는 문화체험터 열씨구 대강의실에서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와 신안씻김굿 예능보유자 진금순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축제에 먹을거리가 빠지면 서운하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대촌주부농단이 운영하는 주막과 식당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예술캠핑마당'에서는 힐링가든 앞 잔디마당에 텐트촌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한다.

공연장 인근에는 힐링가든, 생태 산책로, 빛과공예전시관 등이 있어 쉬엄 쉬엄 산책하기도 좋다.

분행사에 앞서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29일 오후 7시30분부터는 광주 남구 푸른길에 위치한 청로정, 빅스포 뒷면, 한신 2차 아파트 앞에서 프린지 공연을 진행한다.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의 '꿈을 나누는 콘서트-아리랑 놀이'를 비롯해 김찬수 마임컴퍼니, 꿈꾸는 작은새, 박사이즈쿠르, 아카펠라 그룹 '이이싱 유싱', 전통연희놀이 연구소 '무등산 호랑이', 탈춤마술사 정슬기의 '작전명 탈춤' 등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굿+판 추진위원회 cafe.naver.com /artgoodpan.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예술난장 굿+판' 본행사장 이렇게 꾸며요



세월호 참사 기억하자

미테-우그로·살구씨 스튜디오 내달 20일까지



미테-우그로와 예술공간 살구씨 스튜디오 오는 9월20일까지 미테-우그로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노기훈, 서용선, 윤석남, 하성훈과 익명으로 참여하는 작가 등 모두 5명이 그날의 슬픔을 이야기한다.

작가들은 세월호 참사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리고 비극을 잊어 가는 모습에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끝까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에 중점을 둔다.

노기훈은 5·18광주민주화쟁 희생자 이미지를 성형수술과 메이크업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복원해 나가는 작업을 선보인다. 서용선은 진도 팽목항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애, 정, 동질감 등을 표현한다.

하성훈은 한지 위에 먹으로 실종된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비바람을 맞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담았고, 윤석남은 우리 마음 속에서 단원과 학생들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완성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70-7782-39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현대웃 입은 '마한과 백제'

국립나주박물관, 내달 10일까지 한·일 미술교류전



한일미술교류회와 국립나주박물관은 2014년도 후원전시로 '제22회 한·일 미술교류전'을 오는 9월10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에는 한·일미술교류회 회원 23명의 신작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 주제는 '마한과 백제'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유적의 중심지에 자리한 국립나주박물관 전시 주요주제인 1500년 전의 마한문화를 현대의 재해석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전시에는 마한문화의 뒤를 이은 백제문화에 대하여 현대적 예술기법으로 재연한 예술작품들이 출품됐다. 특히 고려려 수산리고분 벽화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일본의 다카마쓰고분(高松塚古墳) 벽화에 나타나는 색동치마 입은 여인들의 모습이 나주의 상징인 배꽃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선보인다.

문의 061-330-782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국 독자 선정 세계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터넷 서점 예스24 설문



베르나르 베르베르(사진)가 한국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세계 작가로 뽑혔다.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말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기가 증명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계의 작가, 세계의 문학'을 뽑는 투표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6780표(9.7%)를 얻어 '오늘을 사는 작가' 1위로 선정됐다. 이어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조앤 K. 롤링이 5422표로 2위를 차지했으며 파울로 코엘료, 무라카미 하루키, 알랭 드 보통, 밀란 쿤데라, 기욤 무소, 댄 브라운, 하기사노 게이오 순이었다.

'별명의 고전 작가' 투표에서는 '어린 왕자'의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5513표(7%)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코난 도일, '레 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도 뒤를 이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여성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영희)가 무등여성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회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발전을 위해 노력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시상식은 오는 9월26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광주여성대회에서 열린다. 문의 062-360-94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득 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룸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